

마음의 평정과 고요를 지니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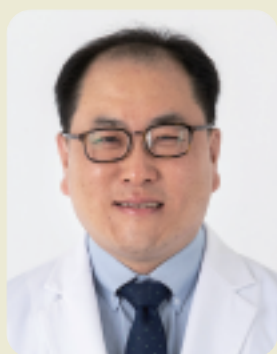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성전스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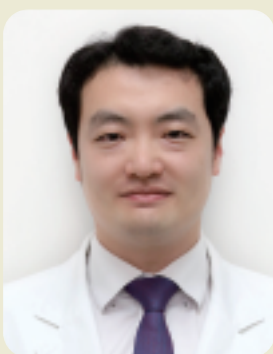
흉부외과 최민석 교수·외과 김성룡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최준권 교수 협진, 응급 수술 릴레이로 환자 생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지난 11월, 3일 간격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고난도 응급 수술을 통해 극심한 복통과 혈변을 호소하던 환자를 살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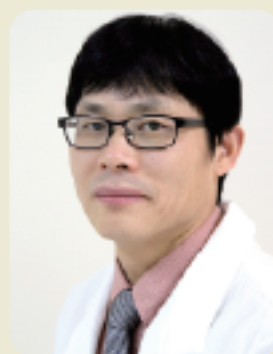
내원한 환자는 사망률 90%에 육박하는 ‘복부대동맥류 파열’ 상태였으며, 흉부외과 최민석 교수팀은 5~6시간에 걸쳐 인조혈관으로 복부대동맥을 치환하는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3일 뒤 환자가 다시 복통을 호소했고, 십이지장 손상이 발견됐다. 손상 부위가 인조혈관과 너무 근접해 치명적인 감염과 재파열로 이어질 위기에 처하자, 외과 김성룡 교수팀이 외과 최고 난이도 수술인 ‘유문보존체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했다. 당시 환자는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였으나 마취통증의학과 최준권 교수를 비롯한 마취팀이 수술 중 불안정한 생체 징후를 안정화시키며 환자 상태를 유지시켰다. 긴 수술 시간 전반에 걸쳐 두 차례 대수술을 받은 환자는 건강하게 퇴원했다.



흉부외과
최민석 교수



외과
김성룡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최준권 교수

‘2025년 QI 경진대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월 15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앞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병원 지하 1층에서 QI포스터 전시 및 투표가 진행되어 최우수 포스터상이 선정되었으며, 본 행사는 환자 경험 중심 활동, 환자 안전 부문, 환자 경험 중심 활동,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활동 등 총 7개의 주제로 구연 발표가 이루어졌다. 대상은 외래간호팀 황지유 간호사가 발표한 ‘전화 예약실·외래(진료과)·검사실 간 예약 프로세스 개선활동을 통한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통합예약실 만들어 볼까?팀이 수상했다. 최우수 포스터상은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SBAR 교육 강화 및 적용을 통한 환자 안전 활동’을 주제로 한 소통처방전팀이 수상했다.



‘2025년 의무기록 작성 우수과 및 우수의’ 시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월 5일과 6일 ‘2025년 의무기록 작성 우수과 및 우수의’를 선정해 시상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혈액종양내과가 체계적이고 상세한 기록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 진료과’로 선정되었다. ‘우수의’에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기록하고 분석한 정신건강의학과 오성진 전공의와 이비인후과 정호영 전공의가 각각 선정됐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 한방병원에서도 내실 있는 의무기록 작성이 돋보였다. 한방내과 유재혁 전공의와 한방재활의학과 이소민 전공의가 차별화된 기록 관리 역량을 보여주며 ‘우수’로 선정됐다.



(재)법보선원 ‘로봇수술센터 구축기금’ 1억 원 보시 회향

(재)법보선원은 지난 1월 9일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의 발전을 위해 ‘로봇수술센터 구축기금’으로 1억 원을 회향했다. 이번 기부는 송담 큰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깊은 원력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로봇수술센터 구축을 위해 총 40억 원을 약정하고 현재까지 34억 원을 기부하며 병원 의료 인프라 확충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9일 개소한 ‘송담 로봇수술센터’는 (재)법보선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만간 로봇수술 누적 1,000례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앞두고 있다.

